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AUG 27 1962
Copy
95
Du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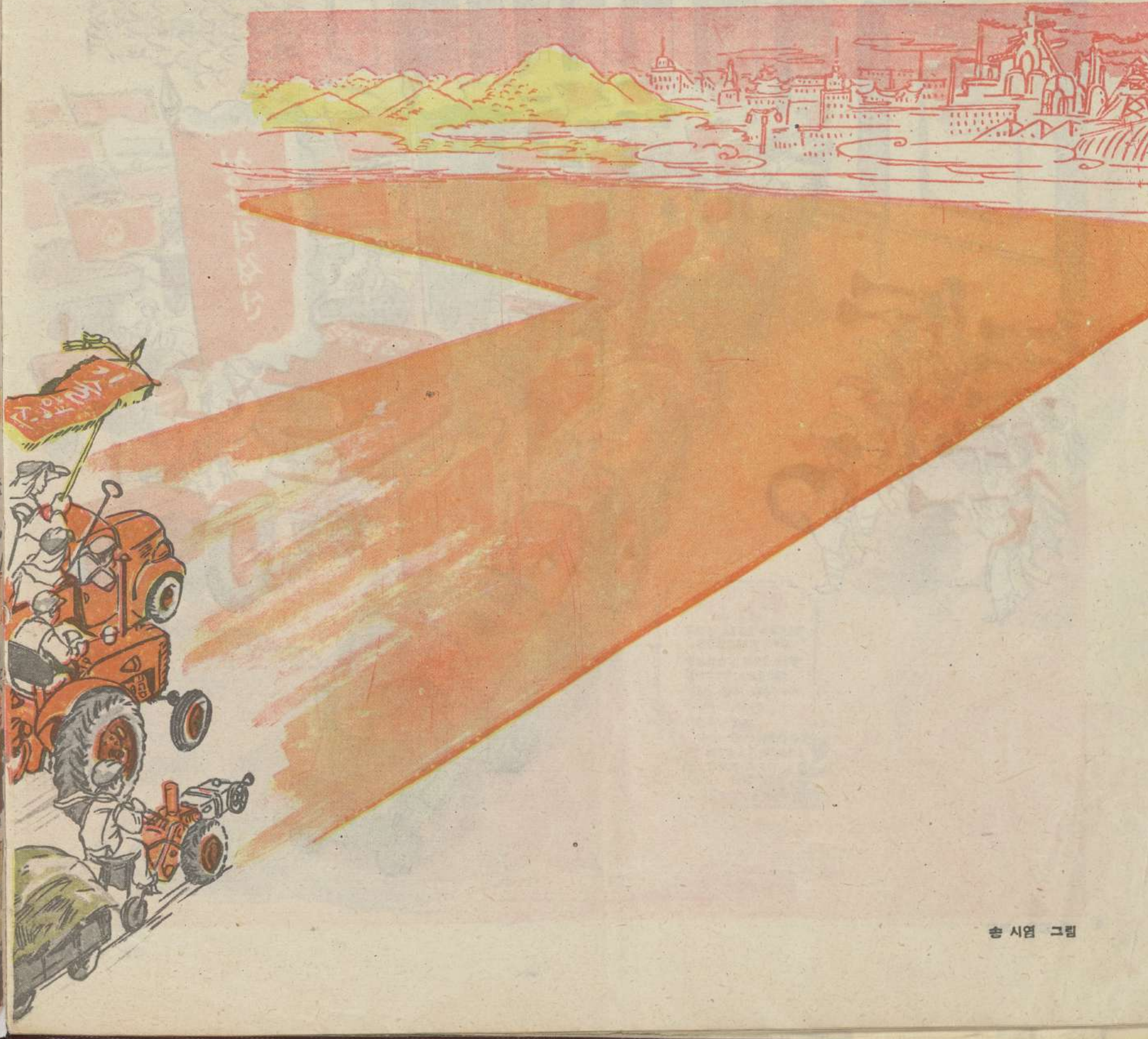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새고지를 향하여

녀 새해를 축하합니다!
남 축하합니다!
녀 새해에는 행복이 한 아름 안겨지기 바랍니다.
남 제 마음도 꼭 같습니다.
녀 그래 동무는 새해엔 무엇을 하기로 결의했습니까?
남 나 말입니까? 나는 우선 금년엔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녀 아니 무얼 효과적으로 그렇게 리용하겠단 말씀이예요?
남 동무는 아직 그믐밤이구만요, 7 개년 계획의 첫 3년간의 과업이 뭐요?
녀 그야 이미 건설한 중공업 기지를 더 잘 정비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남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중공업의 기지를 잘 정비하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경주의 스타트를 뗐단 말입니다.
이런 기초 우에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래서 사람마다 문화 주택에서 풍족한 생활에 웃음꽃이 피여 부부간이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속삭이며 깨가 쏟아지도록
녀 저런! 말씀하시는 걸 보니 막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모양이구만요!
남 예 동무처럼 꼭 마음에 드는 녀자가 있으면 빨리 결혼을 해서
녀 어마나! 그런 롱담두 해요!
남 용서하십시우, 그저 맘 속에 있던 생각이 나도 모르는 새에 그만 튀여 나왔구만요. 금년에 우리 로동자들은 우선 농촌 경리와 수산업과 지방 산업의 기계화에 필요한 기계부터 만들어 1만 5천 대의 뜨락또르가 산간에까지 달리게 하구 자동차도 더 많이 보내서 농민들의 일을 더 헐하게 해 주구 그리고 비날론 공장 건설에 힘을 집중해서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더 강화하구 그렇게 해서…에헴! 인민들의 생활을…
녀 뽐 내지 마세요.
우리도 알곡을 100 만톤이나 더 많이 생산하구 2 모작을 더 많이 해서 사료를 해결하여 근로자들에게 고기를 담뿍 담뿍 안겨 주구 기계화를 더 촉진시켜서 거기서 남는 소에서 젖을 짜서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우유를!
남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큰 배와 어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인민들의 식탁마다에 더 많은 물고기를…
녀 그럼 금년엔 펄펄 뛰는 생선을 더 많이 먹게 되겠군요!
남 암 그뿐만 아니라 금년에 우린 광업에 계속 화력을 집중해서 외화를 획득하구 금속 공업과 동력 시설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경공업 제품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좋게 만들어서 녀자들은 생글 생글…
녀 남자들은 싱글벙글
남 금년엔 좀 싸우렵니다.
녀 아니 누구와 그렇게 틀렸기에…
남 동무두 참! 싸운다니 내가 무슨 쌈'군이 되겠다는 줄 아십니까?
녀 그럼요?
남 전면적인 기술혁신 증산과 절약은 1961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아닙니까 그래 온갖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구 난관은 박차고 보수주의, 소극성은 부시고
녀 그런 싸움이야 동무만 하나요!
남 그럼 누가 먼저 7 개년 계획의 첫 고지에 오르나 경쟁합시다.
녀 좋아요 지지 않도록 하세요!
남 그럼 이 7 개년 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내다 보며 첫고지를 향하여 천리마에 박차를 가합시다!
녀 네, 함께 달립시다!

리 윤봉

천해의 진군 명령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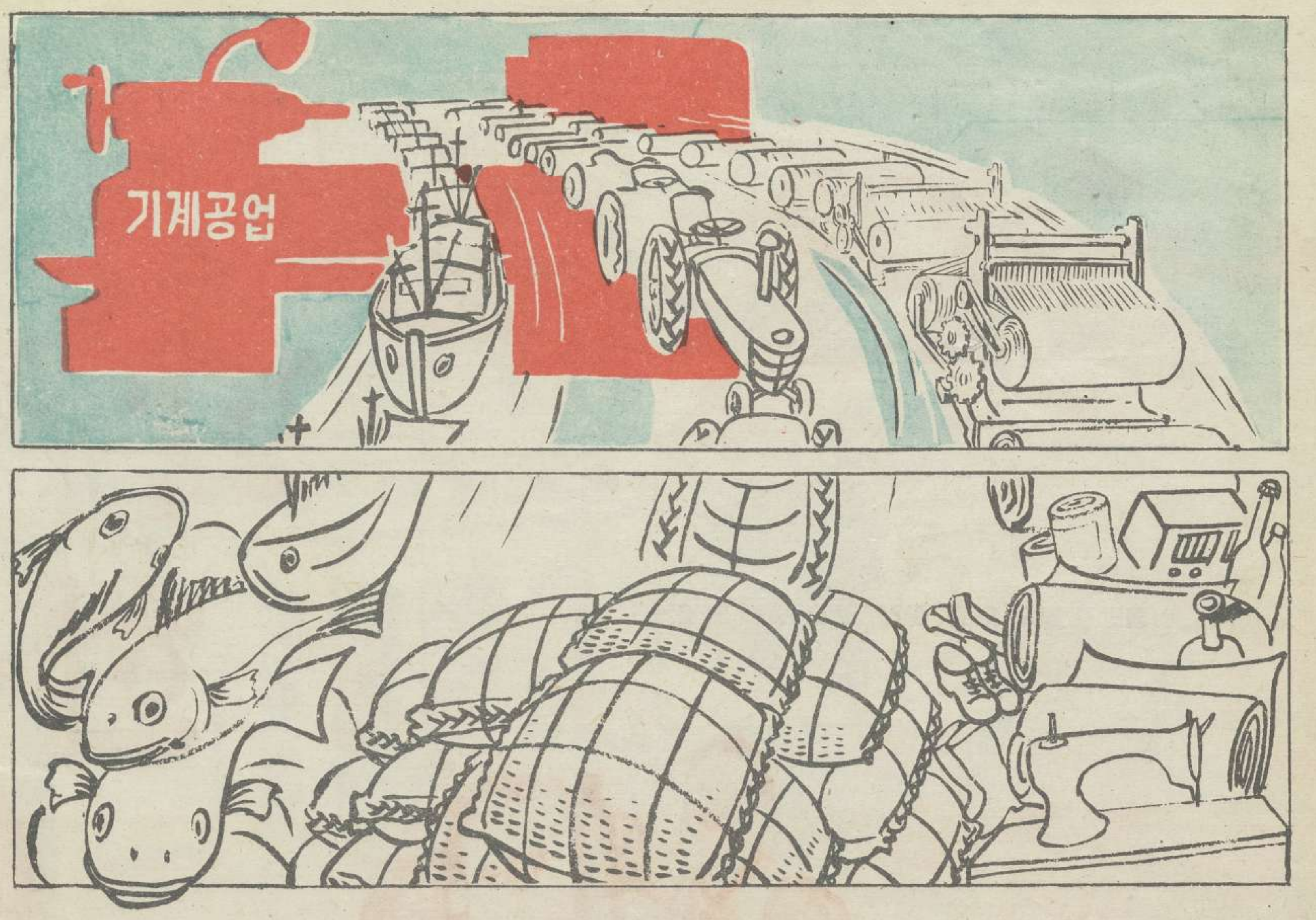
송 시염 그림

출진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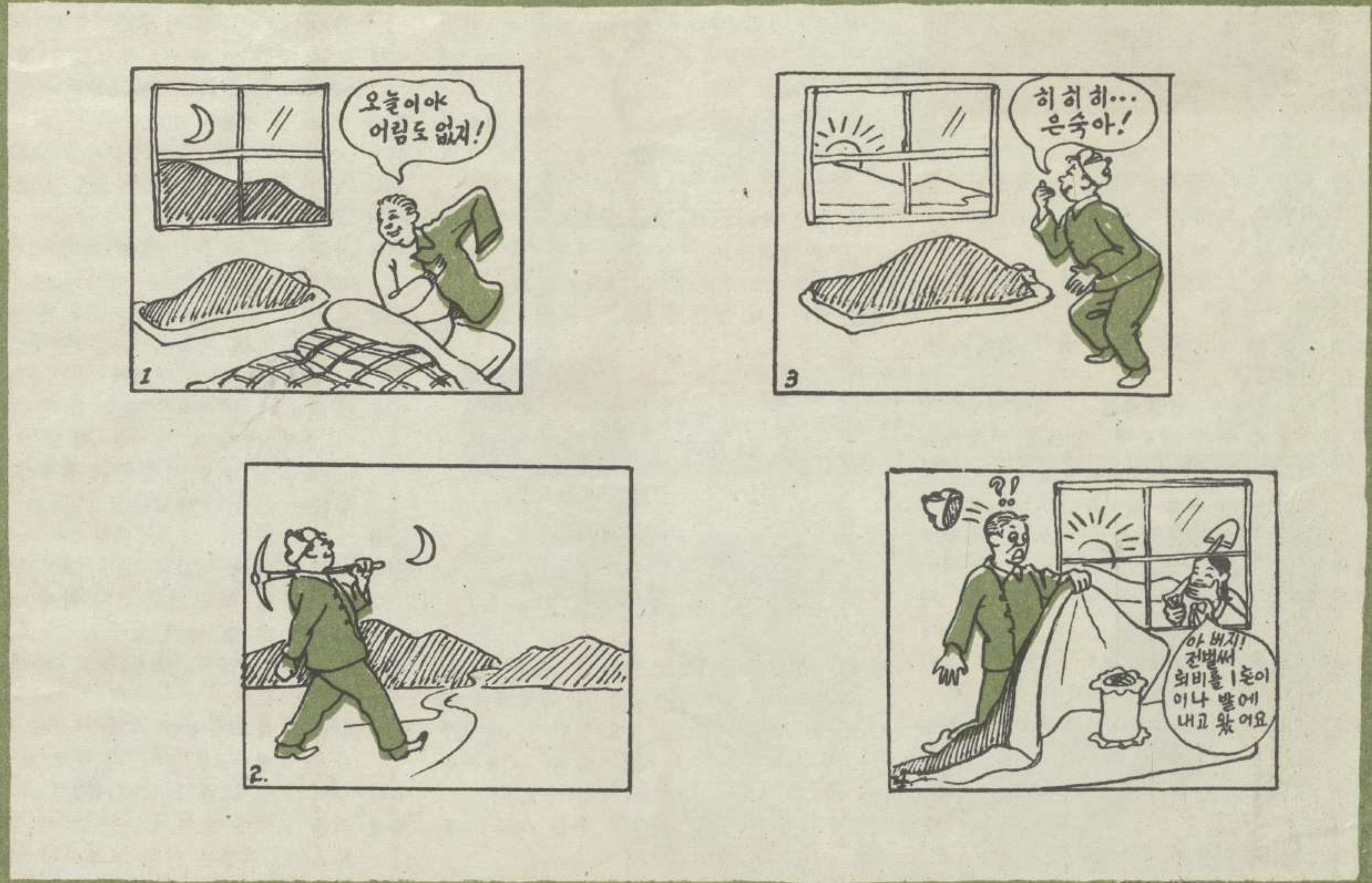
아름답고 맵시 있고 질긴 소비품을 더 많이!

송 시엽 그림



협동 작전

송 용남 그림



함남 단천군 심 상기 그림

평양시 정 정진 그림

최 학신 원 광수 그림

《첫 수업》

신 홍순

선생 새해 첫 수업부터 왜들 이 모양이야? 어째서 모두 이렇게 숙제들을 못해 왔어? 엉? 김 인숙!

인숙 예, 저— 불 때문에 못해 왔습니다.

선생 불 때문에?

인숙 어젠 우리 구역에 전기'불이 안오는 날입니다.

선생 아, 지금 서울에선 전기'불을 지역별로 주기 때문에 밤이면 어둡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노릇인데 그런 전기'불만 믿으면 되나? 무슨 딴 대책이 있어야지 석유 등잔이나 초'불 같은…

인숙 석유 사 달라고 하다가 어머니한테…

선생 왜 야단하시던? 아 숙제하겠다는 데 욕은 무슨 욕?

인숙 쌀도 사 먹기 어려운데 석유 살 돈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선생 허긴 밤이면 너나 없이 딱허긴 딱한 노릇이야

영철 선생님

선생 응

영철 선생님 그런데 저—…

선생 어서 말해 봐

영철 북조선엔 전기가 많아서 밤에도 거리가 대낮 같다는데 여긴 왜 전기도 적은가요?

선생 북조선에야 발전소가 많아서 전력이 풍부하지만 여긴 워낙 발전소가 적어 그렇지

영철 그런데 선생님, 북조선에서 전기를 보내 주겠다고 허는데도 정부에선 반대헌다죠?

선생 쉬! 그런 말허면 못써

영철 선생님 모처럼 남조선 인민들을 위해서 보내 주겠다는 걸 왜 거절허나요?

선생 음, 그건… 그 전기엔 말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묻어 오기 땜에 그런다는 거야

영철 원 선생님두! 전기에 무슨 사상이 묻어 댕겨요?

인숙 오 참, 선생님 전기를 만지면 찌릇찌릇헌 게 그게 사상인가요? 호호

선생 그런 말 허면 못써! 봉학인 어째서 못해 왔지?

봉학 저도 불 때문입니다.

선생 뭐? 이건 전랑 전기'불 타령이로구나!

봉학 저는 불은 불인데 그런 불이 아닙니다.

선생 그럼 어떤 불이야?

봉학 아궁에 때는 불이 없습니다. 랭방에서 밤 새도록 오들오들 떠느라고…

선생 석탄이 떨어졌단 말이지? 하긴 요즘 누구나 석탄 때문에 고생들이다. 있다는 건 값이 너무 비싸구…

인숙 선생님 저번 지리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우리 나라 땅 속에는 전 조선 인민이 쓰고도 남을 석탄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 있다고 하잖았어요?

선생 그렇구 말구

인숙 그런데 어째 이렇게 탄이 모자라나요? 있다는 건 어방 없이 값이 비싸 웬만한 형편엔 사 땔 수가 없구요

선생 음 그건 말이다. 음 탄광도 저 북조선에 많단다.

영철 선생님 북조선에선 석탄두 보내 주겠다고 그랬다죠?

선생 아니 누가 그런 소릴 허든?

영철 지금 모두들 모여 앉으면 그 얘기 뿐인데요 뭐 선생님 여태 모르시나요? 학교두 크게 지어 주구 수업료도 없이 누구나 다 무료로 공부를 시켜 주겠다는거

인숙 그리구 학생들에겐 피복까지 준다고 그랬대요 선생님

선생 허어 그런 소릴 함부로 허면 못써!

인숙 선생님 전 영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어째 준다는 석탄도 안받아 오면서 이렇게 추위에 떨게 내버려 두는지?

선생 결국 그 석탄에도 빨갱이 사상이 묻어 온다는 거지

인숙 아니 석탄이야 까만 건데 빨강긴 뭐가 빨개요!

영철 옳지 석탄을 때면 불이 빨겋지 않아? 그걸 만지면 뜨끈 허는 게 그게 아마 사상인가봐 하하하

선생 허어 그런 말 허면 못쓴다니까. 큰일 날려고 그러는구나.

인숙 선생님 밤이면 전기'불이 환하고 추운 겨울에도 뜻뜻이 지내는 게 나쁠 게 뭔가요?

선생 잉 그렇게 자꾸만 캐 묻는 게 아냐! 어쨌든 우리 남조선에선 단 하나 《자유 사상》 이외의 다른 건 얘기조차도 해선 안된단 말이다!

영철 선생님 《자유 사상》이란 건 그럼 깜깜헌데서 오들오들 떠는 걸 좋아하는 사상이로군요?

선생 …

장면의 신춘 예산 편성

장면—지시대로 하였으니 승인해 주십시요

장 면 도당의 소위 《61년도 국가 예산》은 작년보다 20% 나 더 많은 5천 5백억 환이나 되는바 그의 74% 이상이 군사 경찰 비이다.

박 승히 그림

지주—…이상이 농지 개혁 후 나에게 물어야할 빚인데 이번에 당신을 찾는데 들어간 내 려비까지도 더 첨가 해야겠소!!

홍 종호 그림

탈곡 마당의 《까마귀》들

송 용남 그림

남조선에서의 현대판 농노제

백 인균 그림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에서 반동적 《농지 개혁》의 후과로 말미암아 봉건적 착취 관계는 그대로 존속 확대되여 농촌 경리의 파국적 위기와 아울러 농민들은 일생 최악의 밑바닥 생활에서 신음하고 있다.

파괴자

림 광수 그림

추곡을 내라!

옛다 받아라!

조 명식 그림

남조선에서의 설맞이

김 철희

자면 눈섭이 희다는 섣달 그믐 날 밤을 남조선 농민들은 뜬 눈으로 꼬박 새웠다. 새옷을 꾸미노라, 설떡을 치노라 윷놀이를 하노라고 밝혔는가? 아니다! 돌쩌귀가 달아서 라이타 처럼 불을 일쿨 정도로 《빚 내라!》《세금 내라!》《농지 상환곡 내라!》들이 닥치는 통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린 자정까지 쪽잠 한잠 못자고 한숨과 눈물로 눈을 끝내 붙이지 못하였다.

설 음식

《잘 먹는 날이 명절》이란 속담대로 온 세상 사람들은 새해 첫 아침상을 푸짐히 차린다. 허나 3백만 절량 농민들의 첫 아침 상은 총 파업을 하는 모양인가! 멀건 밀기울 죽이나 시래기 죽 사발에는 그들의 여윈 얼굴만 서글프게 비친다. 간혹 떡을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나무 껍질로 만든 시뻘건 송기떡이다.

—죽이나마 배'가죽 주름살이 펴지도록 먹었으면—온 일년의 념원은 정월 초하루의 아침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 굶어 죽을 공포가 무시무시하게 설날부터 달려든다.

설 옷차림

알락달락 설옷을 입은 농민과 그들의 가족들! 그렇다! 쪼각쪼각 모아서 기운 누더기 옷은 색동 저고리는 아니지만 알락달락하다. 내복 한 벌 없이 살'결이 여기저기 드러나는 외출복 겸 작업복 겸 잠옷 겸 례복 겸 해 입은 그들, 남복 겸 녀복, 성인복 겸 아동복, 의류 겸 침구… 겸하는 것은 많아도 어느 모로도 제 역할 못하는 때 묻은 누덕옷! 《4천년래의 민생고》라지만 어느 옛날 이로록 헐벗고 설을 맞았는가. 그래도 무명 새옷이나 빨아 대린 옷이야 없었던가! 새옷을 자랑하는 어린이들의 풍습은 없어진지 오래다. 생지옥의 설, 눈물의 설, 한숨의 설은 헐벗은 남조선 농민들의 어제와 다름 없는 날이다.

축 배

남조선 농민들은 이 빠진 사발로나마 축배를 들었다. 허나 그 속의 것은 샴팡도 청주도 위스키도 아니다. 맑은 랭수… 주린 창자에 랭수라도 집어 넣어야 허리를 펼 수 있지 않는가!

가슴 타는 불행 속에서 랭수를 마셨다고 후련해지랴! 먼저 들어간 죽물만 흘거워질 뿐!

세 배

《올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남조선에선 그런 세배는 종적을 감춘지 오삼년이다.

《뭘 좀 요기라도 했능기오?》

이것이 최근 년간의 남조선 농촌의 새해 첫 인사 말이다. 보리'고개가 아니라 쌀고개가 생긴 남조선… 올해에도 《립도 선매》《립맥 선매》를 해야 살아 갈 것인가!

《올해엔 제발 물 란리나 나지 말았으면…》이것이 세배의 말로 되였다.

윷 놀이

《모냐?》《숭이냐?》

저 소리는 그런 윷놀이 판에서 나는 즐거운 기합 섞인 외침이 아니다.

《뭐야?》《순경이야!》하는 소리이다. 설에도 꼼짝달싹 못하게 구는 장면 도당과 리승만 잔당들이 농민들이 일떠설가 두려워 꽥꽥 뼉따귀 걸린 소리를 내 뱉는 것이다. 략탈한 수세를 내놓으라는 농민들의 완강한 요구에 순경으로 방패하려는 매국노들의 수작이다.

미국의 얼굴

오 은렵

(1) 미국에서의 결혼

우리들은 보통 어떤 처녀가 약혼을 하였다면 《누구와 약혼을 하였는가?》고 묻는다. 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와 약혼을 했는가?》고 묻는다는 것이다.

어느 날 뉴욕 사교계에서도 이름난 잭슨 부인과 토마스 부인이 어느 오찬회 석상에서 만났다.

《오우! 잭슨 부인, 그 처녀는 하늘의 별을 딴 거나 다름 없지 뭘 그래요. 친정도 부자지만 남편 될 사람도 그에 못지 않는 부자라우》

《토마스 부인, 그래 그 처녀는 얼마하고 약혼을 했어요?》

《아마 1억 9천만 딸라 이상일걸요》

《오우! 하나님 맙시사. 정말 훌륭한 신랑감이군요. 그래 신랑이 한 예순 살쯤 났는가요?》

《아유! 예순 살이 뭐예요? 신랑이 예순살이면 뭐가 행복해요?》

《그럼 신랑이 몇 살이나 났어요?》

《일흔 아홉 살이죠》

《일흔 아홉 살이요? 송장이나 다름없군요?》

《차라리 송장이라면 더욱 좋지요머 호호호…》

(2) 부상자는 없었다

사람들이 무수히 오고 가는 번화한 거리를 가로 막고 물어 보라, 《전쟁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전쟁을 원하랴!?

하건만 미국 독점 자본가들과 펜타곤의 살인귀들은 대량 살육을 위한 군비 경쟁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그러나 그 군비 경쟁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신문을 파는 한 소년이 허리에 찬 종을 요란히 울리며 거리를 내 달아 간다.

《호외요! 호외! 자! 특급의 새 소식입니다. 특급의 새 소식… 자 호외를 사십시오. 새 소식입니다. 자 사십시오. 특급의 뉴—스, 일대 쎈세이숀입니다. 자! 자!》

지나가던 행인이 발을 멈추었다.

《도대체 무슨 쎈세이숀이란 말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어졌소?》

《로케트 시험장이 폭발된 사건입니다!》

이 말에 한 귀부인은 비명을 올리고 금시에 졸도라도 할듯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였다. 행인은 깜짝 놀라 물었다.

《오우! 부인, 이거 웬 일입니까? 부인, 진정하십시오》

《나의 남편 스토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의 남편이요?》

《나의 남편은 공군 대좌입니다.》

《그런데요?》

《그이는 오늘 아침에 펜타곤의 지시를 받고 로케트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오우, 그러니 이걸 어쩝니까?》

《부인, 념려 마십시오. 이 호외는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 로케트 시험장은 폭발되였으나 부상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니… 참으로 거룩하신 신의 은혜 올시다. 허지만 시험장이 폭발되였다는데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었다니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호외를 팔고 있던 소년은 대답하였다.

《모조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상자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귀부인은 드디여 기절을 하고 말았다.

장 면 협주단 신년 공연

집단 리농민의 신년 맞이

경관—《집회 데모법》 위반이다… 뭐! 집단 리농민이라구?

미제의 년말 년시 비상 순찰

미제—빨리 걸어 무슨 냄새를 못 맡았어…

새해에도 잘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새해의 첫손님

—못 내겠다 못 내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뜯어갈 셈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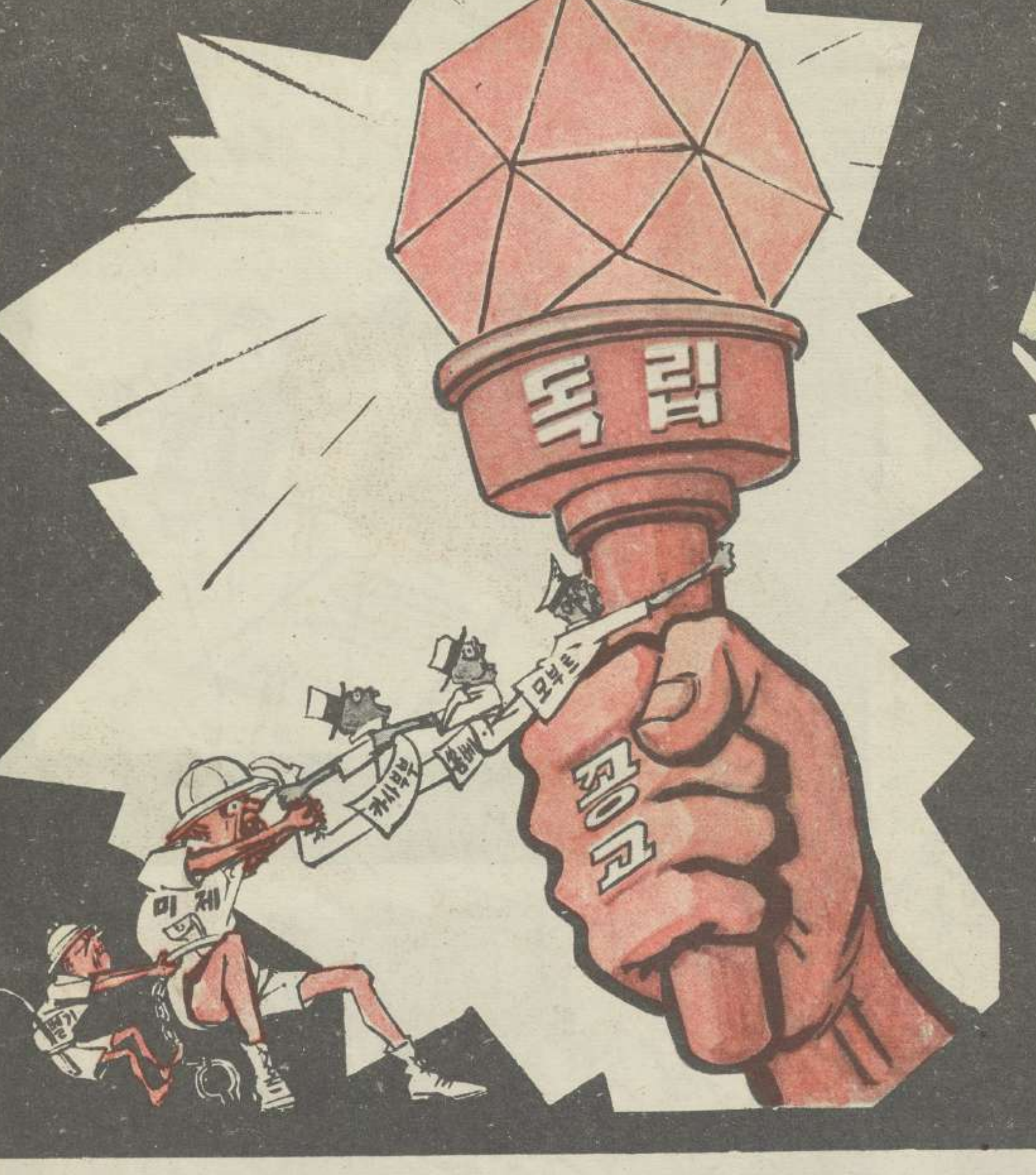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더욱 커지는 투쟁의 불'길

조 명식 그림

콩고에서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라오스에서

큐바에서

안 창수 그림

코 깨진 려행

백 인균 그림

로 첩

평화의 봄,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봄, 넓은 사회주의 진영은 승리와 행복을 노래하는 10억 인민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인류 리상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처럼 달려 온 그들—력사 발전의 억센 운전공들, 20 세기의 참된 영웅들— 오늘은 새해, 새 희망을 안고 계속 앞으로, 1961 년의 스타트를 뗐다.

천리마의 기상 나래치는 조선에서 7 개년 계획의 총진군 나팔'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데 수천 수만 천리마 기수들이 높이 든 조국 통일, 민족 번영의 홰'불과 홰'불은 암흑의 남녘 땅을 비친다. 세계의 심장을 격동시킨다.

공산주의 대문을 열어 제끼고 있는 쏘련은 모두가 로케트를 탔는가, 쏘베트 돌격수들은 《6 년만엔 완수할 수 있소》하고 7 개년 계획의 세번째 해 바통을 틀어 쥐고 달려 나아가고 있다.

7억 인민이 거듭 대약진하고 있는 넓은 중국은 수년 내에 영국의 공업을 따라 앞서려 한다. 단숨에 하늘을 난다는 신룡도 중국 인민의 기세 앞에서는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으리.

기타 구라파와 아세아의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여기서는 7 개년 계획의 새 봉화가 오르고 저기서는 새 5 개년 계획의 개가가 울렸다.

세월을 주름 잡는 천리마의 속도.

세계 반동의 원흉, 국제 헌병의 괴수 미제를 발굽 아래 짓밟으면서 사회주의는 전진한다, 전진한다!》

—에이, 그, 그 라지오 스위치 빨리 끄시오! 창, 창문 휘장도 내리시오! 으으으…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오들오들 떨면서 뒤'걸음질 치려고 허우적거렸다.

—오 저, 천리마들, 나 깔아 죽이려고 막 달려 옵네다… 오, 하나님, 나 사 살려…아앗? 국, 국방 장관 거기 없습네까?

케네디는 풀석 안락 의자에 주저 앉았다.

—넷! 국방 장관 여기 대령했습네다.

하아 졸도하셨군… 헤헤 각하, 라지오 부근에 접근하는 것, 삼가하는 게 좋습네다. 아이젠하워도 사회주의 진영 라지오 듣다가 몇 번 졸도한 매우 아름답지 못한 경험 있습니다. 자, 이거 진정제 잡수시고 어서 기운을 좀…

—으—흠…, 아! 나 혼 많이 많이 났습네다. 에이, 그놈의 라지오 무섭기도 웬…

—각하, 래일 대통령 각하 께서 연설하실 날이온데 기운 좀 내셔야지, 그까짓 천리마 때문에…

—그까짓 것이라구? 아, 아닙니다. 그거 보통 《말》 아닙니다. 그거 우리 목아지 조이는 아주 무서운 속도입네다. 오우 무서워…

케네디는 으스스 떨며 멧돼지 목 같은 제 목아지를 어루만졌다.

—각하! 저에게 매우매우 좋은 생각 있습네다. 래일 연설 하실 때 한바탕 우리 미국의 속도 선전하는 것 어떻습네까? 아메리카식 속도…

—오우! 그것 좋습네다. 아메리카식 속도… 우선 국방 장관, 당신 그런 신통한 자료 가지고 있으면 말해 보시오.

—오케오케. 우선 그 플라리스 형 탄도 로케트 자랑하는 것 어떻습네까?

—로케트? 그게 언제 됩네까?

—5 년 내에 완성하여 7 년 내에 일부 부대에 도입하고 9—10 년 내에 전군에 도입할 수 있다고 확신성 있게…

—10 년? 그, 그것 대체 무슨 속도입네까? 달팽이 속도와 다른 것 무엇 있습네까, 앙?

—그, 그러나 이렇듯 로케트는 그 천리마인지 하는 《말》보다는 현대화…

—까뗌! 당신 같은 무식쟁이를 장관으로 데리고 있다가는 《대》 미국 대통령 하루 수십 번 망신하기 딱 좋겠습네다. 물러가시오! 거기 상공 장관 있습네까?

—헤헤, 아까부터 각하 옆에 이렇게 대령하고 있습죠, 네. 무슨 분부라도…

—상공 장관! 당신이야 물론 아메리카식 속도, 희안한 자료 가지고 있겠지…

—암 여부 있습네까, 네. 우선 우리 미국 강철, 선철, 자동차 생산만 보더라도 지금 바야흐로 무서운 아메리카식 속도로써…

—오 올라 가고 있습네까?

—내려 가고 있습니다만….

—?

—그러나 각하, 념려 마십시요. 각하 부자께서 경영하시는 캘포니야 재단의 그 높은 리윤 속도만은 제가 뼈를 갈아서라도 보장…

—상공 장관! 그런 말 좀 살랑살랑 할 수 없습네까?(쳇! 장관이라는 게 모두 다 말뚝같이 우둔하고 무식한 놈들이군…) 게 또 뉘 없습네까? 멋진 자료 가지고 있는 장관이, 앙?

—로동 장관 아뢥네다. 저 실업자 문제는 어떨까요? 지금 500만 명이란 최고 기록을 돌파 중이온데 제가 장기간 《심각히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걸 요 몇 달 내에 0 이라는 수자로, 그야말로 아메리카식 속도로 떨어 뜨릴 수 있다고…

—어떻게?

—각 가지 세금을 더 바싹 올리면 아사자, 병사자, 자살자 무데기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업자 수는, 헤헤, 쭉 줄어서…

—보건 장관 말씀 드립니다. 지금 뉴욕에 인구 1 인 당 1.8 마리의 쥐가 있는뎁쇼, 이 숫한 쥐새끼들 몽땅 잡아 《통조림》을 만들어 《동맹국》들에 《원조》하면 우리 미국 경제 위기, 그야말로 아메리카식 속도로 해소될 수 있다고…

—오우 장관 제씨들! 제발 그만들 두십시오…. 나 머리 아찔아찔합네다. 으으흐…

바로 이때 국무 장관이 무엇에 쫓기듯 허둥지둥 달려 들어 왔다.

—대통령 각하! 야단 야단 났습네다. 라오스와 콩고에서 우리 미국, 침략 계획 모조리 드러났다는 소식이 들어 왔습네다. 남미주에서는 에쿠아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 도미니카, 코스타리카에서 또 다시 반미 폭동, 반미 시위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무엇이? 오우… 아메리카식 속도?!…

—앗! 대통령 각하!… 아하, 또 졸도하셨군. 이거야 말로 아메리카식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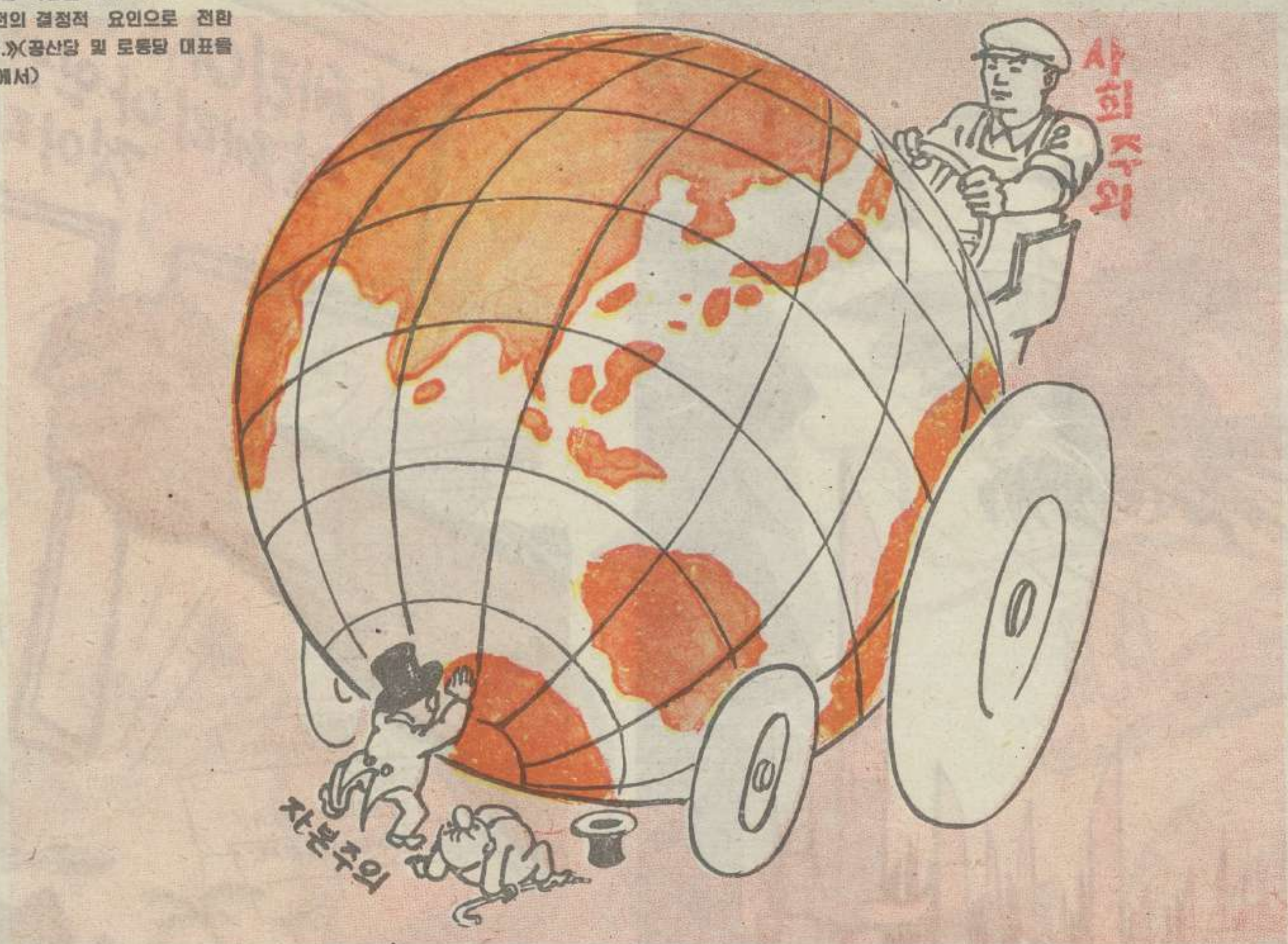
천리마여! 우리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여! 달려라 더욱 힘차게! 온갖 쓰레기들을 지구 우에서 쓸어 내면서.

《망령》들의 망년회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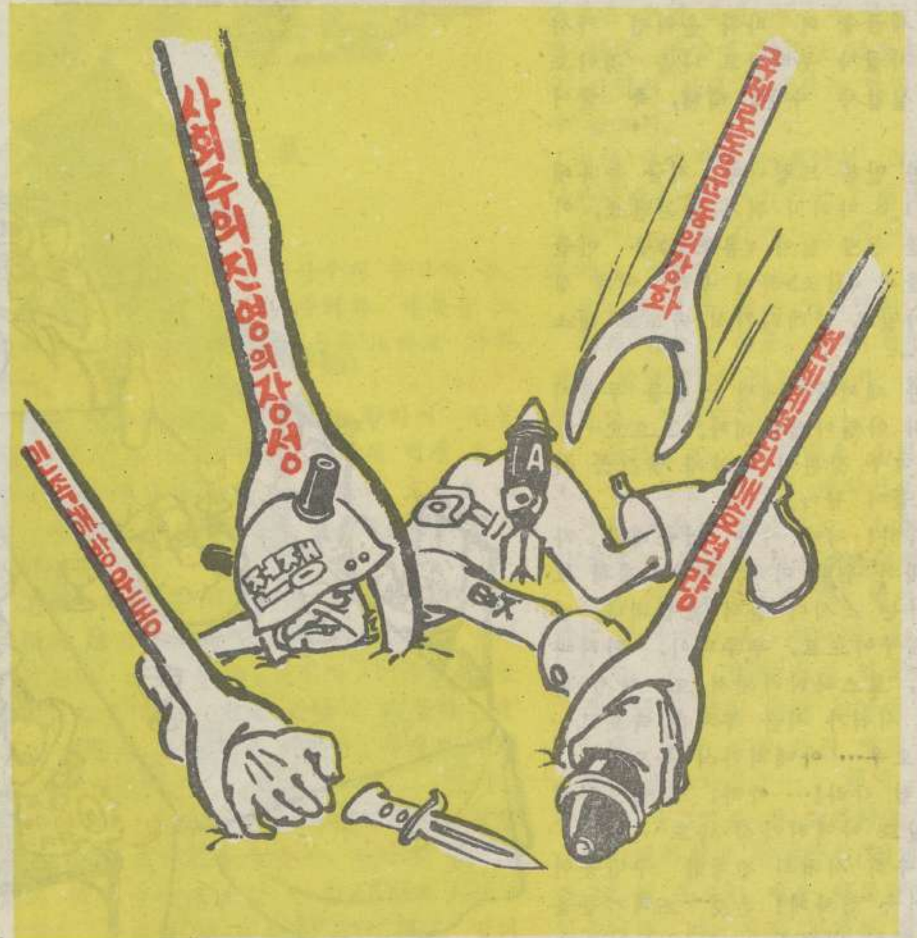
현 시기의 특징

《우리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인류 사회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것이다.》(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중에서)



《세계 대전을 도발하려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시기는 닥쳐 왔다. 세계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계급, 민족 해방 운동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나라들 및 전체 평화 애호 력량의 단합된 노력으로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다.》(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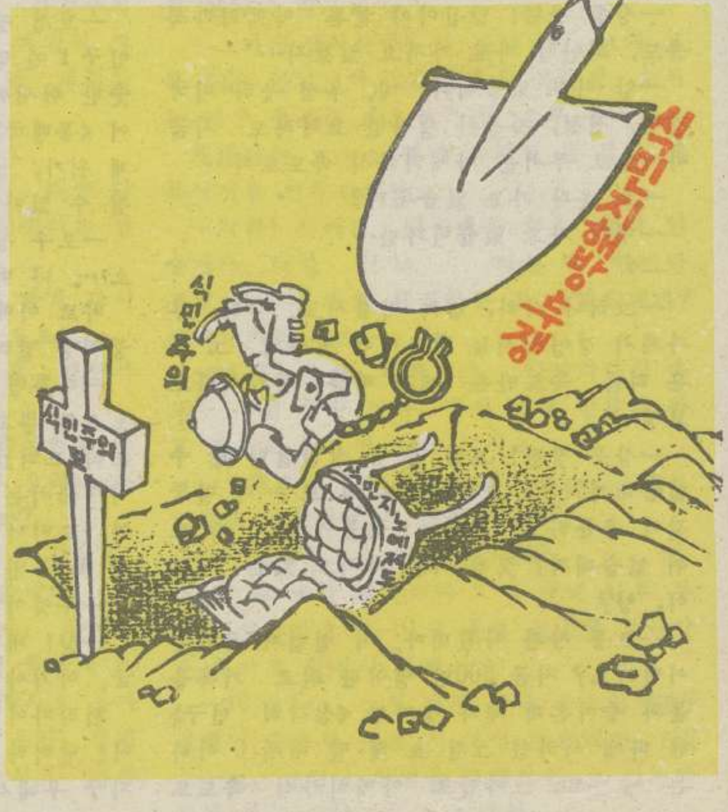
단합된 노력으로



《식민주의의 완전한 파산은 불가피하다. 민족 해방 운동의 타격에 의한 식민지 노예 제도의 붕괴는 그 력사적 의의로 보아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에 다음가는 현상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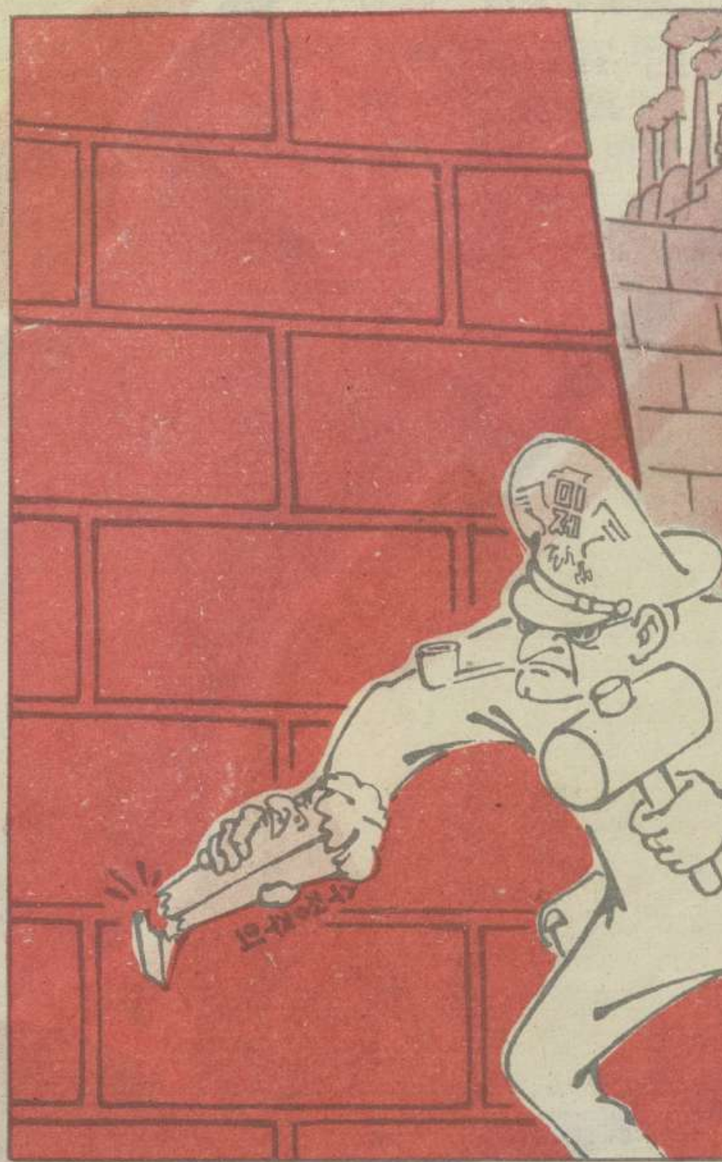
식민주의에게 마련된 것



지울 수 없는 《락인》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성명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주고 있다.

제국주의의 《쐐기》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수정주의는 사회주의 진영파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반대하는 파괴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독자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화살"에 대한 고귀한 의견과 펠레똔 및 만화 작품들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살" 편집부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6274
발행 1961.1.20
(값 40 전)

통일의 길을 열자

허 능택 그림

8280 Хвальсаль
95 Dup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